

산업체 근로자들의 식행동과 기호도에 관한 연구

안 빈·김 상 연*

여주대학 가정학과·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A Study on the Eating Behaviors and the Preferences of Industrial Workers in Korea

Bin Ahn and Sang-yeon Kim*

*Dept. of Home Economics, Yeoo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ating behaviors and the preferences of industrial workers in Korea.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0 to June 20, 1998 by constructed questionnaires and the subjects were 364 males and 588 females.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subjects who didn't have breakfast regularly were 41.7%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time to eat. The main type of breakfast were cooked rice. 2) The subjects who used the company cafeteria were 60.5% and men used the company cafeteria more than women. The most favorite side dishes by the subjects were roasted foods and next side dishes were seasoned foods. Ther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kinds of favorite side dishes between men and women. The main reason that the subjects preferred to a specific side dish was 'delicious'. 3) Foods and dishes that the subjects could approached frequently and easily made the eating habits changed. The most favorite meal types of the subjects were Korean foods because those were good taste for the subjects. The favorite snacks by men were ramyon and those by women were rolled rice(Gimbab). 4) The pan-fried foods(Jun) were the most favorite food in the cloudy day and the salads were the most favorite food in the sunny day. The most favorite taste of the subjects were light and clear tastes and next favorite taste of the subjects was salty tastes.

This study shows that the eating habit of industrial workers could be changed by easily and frequently approached food and weather. In addition, the lacks of time was main reason that the subjects couldn't have regular breakfast.

Therefore, it needs to develop the desirable programs and diet menus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the industrial workers and weather.

Key words: eating behaviors, preferences, eating habits, industrial workers.

I. 서 론

계속적인 산업발달은 산업체나 공단 규모의 확대와 함께 여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단체급식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급식산업은 내적, 외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양적 팽창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급식 대상자들의 급식에 대한 기대감과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1,2)}.

각 기업체는 근로자의 건강을 기본으로 식품의 대량구입과 조리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상의 능률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체의 생산효율과 함께 경영전반에서 근로자의 영양섭취 및 식생활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만족도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 대상자들의 식습관과 식행동을 알아야 하며, 식품기호상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적으로 균형이 잘 이루어진 식단일지라도 기호에 맞지 않아 급식대상자들이 많은 양을 잔반으로 남긴다면 식량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루 필요 영양소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³⁾.

식행동 및 기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문화수준, 식습관, 연령, 가족구성, 출신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주거형태 및 식품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⁴⁻⁶⁾. 그동안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⁷⁻⁹⁾, 식품섭취기호도 조사¹⁰⁻¹³⁾, 영양공급실태 조사¹⁴⁻¹⁷⁾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다양한 식행동과 함께 기호도를 조사하여 산업체 급식에 적용이 되도록 계획한 조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식행동과 기호도를 조사하여 기업체 단체급식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경기도 이천지역의 대기업(전체사원 22,000 여명 규모)에 근무하는 근로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¹⁸⁾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5월 20일부터 1998년 6월 20일 사이이며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를 통해 그들의 식행동과 기호도를 조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952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 문항은 여러 문헌^{2, 4-7, 12)}을 참고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성장지역 및 주거형태를 조사하였다.

2) 식행동

조사 대상자의 식행동을 알기 위해 아침식사 여부와 아침식사시 메뉴, 점심식사시 사내식당의 이용도와 사내 식당의 선호반찬 등을 조사하였다.

3) 기호도

조사대상자들의 기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그들이 선호하는 식사형태와 선호하는 조리형태, 선호하는 간식, 기호에 따른 선호 음식, 선호하는 맛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3. 조사자료의 처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행동 및 기호도를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남녀간 식행동과 기호도 분포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¹⁹⁾.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성

별 분포는 남자가 364명(38.2%), 여자가 588명(61.8%)으로 총 952명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83.7%가 20~29세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81.5%가 미혼자였으며 18.5%는 기혼자였다. 성장지역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2.8%가 농어촌 지역에서, 23.5%가 대도시에서, 19%가 중소도시에서 성장하였으며, 주거형태는 조사대상자의 51.7%가 기숙사생활하여 조사대상자의 반 이상이 집단급식에 의존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택거주자는 30.5%, 자취하는 조사대상자는 14.8%이었다.

2. 식행동

1) 아침식사 여부

조사 대상자의 아침식사의 여부와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23.3%가 아침을 항상 먹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25.3%, 여자는 22.0%였다. 반면, '거의 안 먹는다'와 '안 먹는다'로 응답한 대상자는 각각 33.5%와 8.2%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1.7%정

도였다. 이상과 같이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는 남자의 경우 '시간 부족' 62.7%, '입맛이 없어서' 16.8%였으며, 여자의 경우 '시간부족' 60.4%, '습관적으로' 18.3% 순이었는데 이는 인문계 고교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이유^{20, 21)}와 같았다. 또한 이런 결식의 추세는 직업과 성별의 구분없이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²²⁾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거르는 것은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이나 개인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습관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아침식사 메뉴

아침식사메뉴는 Table 3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75.3%가 밥을 먹는다고 하였으며 빵과 시리얼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각각 전체 조사대상자의 18.3%, 2.8%로 전체의 21.1%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아침식사형태의 남녀간 분포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점심식사시 사내식당의 이용도

점심식사시 사내식당의 이용도는 Table 4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60.5%가 거의 매일 사내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남녀별 점심식사시 사내 식당의 이용도를 보면 남자 76.8%, 여자 50.3%로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사내식당 이용율이 낮게($P < 0.001$) 나타났다. 이는 여자 대상자들은 간식이나 대체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자 대상자들은 사내식당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²²⁾.

4) 사내식당의 선호반찬

사내식당의 반찬 선호도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 구이류 19.7%, 조림류 14.5%, 무침류 12.5%, 전류 11.1%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무침류 18.3%, 조림류 17.4%, 구이류 15.9%, 샐러드 10.2%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간에 선호하는 반찬의 종류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조사대상자들이 특정 반찬류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자 77.0%, 여자 73.0%로 나타나 음식의 맛이 '영양고려'나 '먹고 나서의 만족감' 등의 다른 이유보다 중요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o.	%
Sex	Male	364	38.2
	Female	588	61.8
Age(yr)	20~29	797	83.7
	30~39	134	14.1
	40~49	18	1.9
	50 ≤	3	0.3
Marital status	Single	776	81.5
	Married	176	18.8
Growth area	Large city	224	23.5
	Small & mediam city	181	19.0
	Farm village	466	48.9
	Mountain village	39	4.1
	Fishing village	37	3.9
	Miscellaneous	5	0.5
Type of residence	Home	290	30.5
	Boarding w/cooking	141	14.8
	Dormitory	492	51.7
	Boarding w/meals	6	0.6
	Miscellaneous	23	2.4

Table 2. The regularity of breakfast and the reasons of skipping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Regularity of breakfast				
Eat it ¹⁾ every day	92(25.3)	129(22.0)	221(23.3)	NS
Simply eat it	134(36.9)	185(31.6)	319(33.6)	
Almost do not eat it	101(27.8)	217(37.0)	318(33.5)	
Never eat it	30(8.3)	48(8.2)	78(8.2)	
Miscellaneous	6(1.4)	7(1.2)	12(1.4)	
Reason not to have breakfast				
No time	175(63.7)	311(60.4)	486(60.2)	NS
No appetite	47(16.8)	91(17.7)	138(17.4)	
Habitually	46(16.5)	94(18.3)	140(17.6)	
Miscellaneous	11(3.9)	19(3.7)	30(3.8)	

¹⁾ It indicates breakfast.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 -test

Table 3. The menus of breakfast.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Rices, cooked	268(75.5)	433(75.2)	701(75.3)	NS
Gruels	12(3.4)	8(1.4)	20(2.1)	
Breads	59(16.6)	111(19.3)	170(18.3)	
Cereals	8(2.3)	18(3.1)	26(2.8)	
Miscellaneous	8(2.3)	6(1.0)	14(1.5)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 -test

Table 4. The frequency of using the company cafeteria on lunch.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Almost every day	278(76.8)	292(50.3)	570(60.5)	0.001 ¹⁾
3-4/wk	43(11.9)	98(16.9)	141(15.0)	
1-2/wk	29(8.0)	114(19.7)	143(15.2)	
miscellaneous	12(3.3)	76(13.1)	88(9.3)	

¹⁾ P-value by χ^2 -test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대상의 연령층은 다르지만 음식 선택 시 식품의 영양적 가치보다 관능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한 이 등²³⁾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5) 식습관 변화 요인

조사대상자들의 식습관 변화 요인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에 남자 40.6%와 여자 49.5%가 응답하여 식생활 여건이 식습

관 변화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변화요인으로는 '가족 친구의 영향'이 22.1%이었으며 '건강이나 체형관리'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2.0%이었다. 한편, '대중매체의 영향'에 의해 식습관이 변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4%정도에 불과하여 신문과 TV 등의 대중매체가 식습관 또는 식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24~26)}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Table 5. The kinds of favorite side dishes and the reasons to prefer to them in the company cafeteria.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Kinds of favorite side dishes				NS
Roasted foods	69(19.7)	92(15.9)	161(17.3)	
Steamed foods	35(10.0)	45(7.8)	80(8.6)	
Fried foods	34(9.7)	43(7.4)	77(8.3)	
Pan-fried(Jun)	39(11.1)	46(7.9)	85(9.1)	
Braised food	51(14.5)	101(17.4)	152(16.3)	
Seasoned vegetables(row)	44(12.5)	106(18.3)	150(16.1)	
Seasoned vegetables(cooked)	35(10.0)	66(11.4)	101(10.8)	
Salads	22(6.3)	59(10.2)	81(8.7)	
Miscellaneous	22(6.3)	22(3.8)	44(4.7)	
Reasons to prefer to side dishes				NS
Delicious	271(77.0)	419(73.0)	690(74.5)	
Considering nutrition of foods	33(9.4)	45(7.8)	78(8.4)	
Good conditions after eating	23(6.5)	39(6.8)	62(6.7)	
Controlling weights	5(1.4)	31(5.4)	36(3.9)	
Miscellaneous	20(5.7)	40(7.0)	60(6.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 -test**Table 6.** The factors that eating habit were changed.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Effects of family & friends	89(25.1)	118(20.3)	207(22.1)	NS
To control weight	93(26.2)	113(19.5)	206(22.0)	
Effects of mass media	13(3.7)	47(8.1)	60(6.4)	
Easily approached food & dishes	144(40.6)	287(49.5)	431(46.1)	
Miscellaneous	16(4.5)	15(2.6)	31(3.3)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 -test

3. 기호도

1) 선호하는 식사형태

선호하는 식사형태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3끼니 모두 한식을 선호하였으며, 아침에 중국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와 같이 한식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입에 맞아서' 47.8%, '일반적인 식사형태이므로' 30.2%, '속이 편해서' 21.2% 등으로 나타나 최근 우리의 생활양식이 서구화되어도 식생활은 여전히 전통적인 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선호하는 간식

조사대상자들이 선호하는 간식은 Table 8과 같다. 남자들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36.2%가 라면을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김밥 20.7%, 우유 19.9% 순이었으며, 여자들의 경우 김밥을 선호하는 사람 2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빵류 23.1%, 우유 20.7% 순으로 나타나 남녀에 있어 선호하는 간식종류에 차이($P < 0.001$)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자들이 라면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은 노의 연구결과²⁷⁾와 일치하였다. Cross 등²⁸⁾에 의하면 간식은 개개인의 전체 영양섭취의 질과 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이 라면을 간식으로 선호하는 데는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간식으로 우유나 과일 등 보통

Table 7. The types of favorite meal and the reasons to prefer

Variable	Breakfast	Lunch	Dinner	Significance	N(%)
Types of favorite meal					NS
Korean food	787(83.4) ¹⁾	686(72.3)	818(86.3)		
American food	144(15.3)	170(17.9)	65(6.9)		
Chinese food	-	59(6.2)	18(1.9)		
Japanese food	5(0.5)	14(1.5)	25(2.6)		
Miscellaneous	8(0.8)	20(2.1)	22(2.3)		
Reasons to prefer					NS
Delicious	202(55.6)	251(42.9)	458(47.8)		
Good conditions after eating	54(14.9)	147(25.1)	201(21.2)		
General meal type	105(28.9)	181(30.9)	286(30.2)		
Miscellaneous	2(0.6)	6(1.0)	8(0.8)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 -test

Table 8. The favorite snacks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N(%)
Ramyons	131(36.2)	76(13.0)	207(21.9)	0.001 ¹⁾	
Breads	47(13.0)	135(23.1)	182(19.2)		
Rolled rice, gimbab	75(20.7)	173(29.6)	248(26.2)		
Pan-boiled Ddukbockki with red pepper paste	23(6.4)	59(10.1)	82(8.7)		
Milk	72(19.9)	121(20.7)	193(20.4)		
Miscellaneous	14(3.9)	20(3.4)	34(3.6)		

¹⁾ P-value by χ^2 -test

식사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영양소들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간식 식품선택에 대한 올바른 영양지식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날씨에 따른 선호음식

날씨의 변화와 음식 기호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결과는 Table 9와 같이 흐린날(cloudy day)에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9.5%가 전류를 선호하였으며, 맑은 날(sunny day)에는 전체조사대상자의 44.1%가 샐러드류를 선호하여 날씨에 따른 선호음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녀별 선호도의 분포를 보면 남자의 경우 흐린날에는 전류, 찜류, 튀김류, 구이류 등의 순이었다. 한편 여자의 경우 전류, 튀김류, 찜류, 구이류 등의 순으로 선호 정도가 거의 유사했으나, 여자의 경우 남자들 보다 많은 수가 전류를 선호하고 있음($P < 0.001$)을 알 수 있었다. 맑은 날에는 여자의 경우 54%가 샐러드를 선호하였으며, 다음

으로는 나물, 조림류, 찜류, 구이류와 튀김류 순이었고, 남자의 경우 26.8%가 샐러드를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나물류, 조림류, 찜류, 튀김류, 전류 등의 순이었으며 여자가 남자에 비해 샐러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이상의 결과에서 날씨변화가 음식선호심리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날씨 변화에 따른 피급식자들의 선호도는 연중 운영되는 단체급식 식단에 예상 기후와 함께 적용함으로써 이용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향후 날씨 변화에 따른 식품선택에 관한 심화된 연구가 요청된다.

4) 선호하는 맛의 종류

조사 대상자들이 선호하는 맛의 종류는 Table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39.5%가

Table 9. The types of favorite foods by weather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Dully day				0.001
Steamed food	60(16.9) ¹⁾	34(5.9)	94(10.1)	
Fried food	38(10.7)	49(8.4)	87(9.3)	
Pan-fried food(Jun)	194(54.6)	456(78.6)	650(69.5)	
Roasted food	33(9.3)	18(3.1)	51(5.5)	
Braised food	2(0.6)	2(0.3)	4(0.4)	
Seasoned vegetable, cooked	7(2.0)	5(0.9)	12(1.3)	
Salads	8(2.3)	7(1.2)	15(1.6)	
Miscellaneous	13(3.7)	9(1.6)	22(2.4)	
Sunny day				0.001 ¹⁾
Steamed food	20(5.6)	16(2.8)	36(3.9)	
Fried food	18(5.1)	14(2.4)	32(2.1)	
Pan-fried food(Jun)	15(4.2)	5(0.9)	20(3.3)	
Roasted food	40(11.3)	14(2.4)	54(5.8)	
Braised food	67(18.9)	72(12.4)	139(14.9)	
Seasoned vegetable, cooked	82(23.1)	122(21.0)	204(21.8)	
Salads	95(26.8)	317(54.7)	412(44.1)	
Miscellaneous	18(5.1)	20(3.4)	38(4.1)	

¹⁾ P-value by χ^2 - test

Table 10. The favorite tastes of the subjects.

N(%)

Variable	Male	Female	Total	Significance
Salty	65(17.9) ¹⁾	98(16.8)	163(17.2)	NS
Hot	56(15.4)	105(17.9)	161(17.0)	
Stimulus	61(16.8)	86(14.7)	147(15.5)	
Greasy	32(8.8)	24(4.1)	56(5.9)	
Light & clear	131(36.0)	244(41.7)	375(39.5)	
Miscellaneous	19(5.2)	28(4.8)	47(5.0)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χ^2 - test

담백한 맛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짠맛 17.2%, 매운맛 17.0%, 자극성 있는 맛 15.5%, 기름진 맛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짠맛을 선호하는 대상자가 남자 17.9%, 여자 16.8%로 비교적 그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등²⁹⁾은 짠맛에 대한 기호도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므로 어려서부터 음식을 짜게 먹지 않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짠맛에 익숙해져 있더라도 높은 식염 섭취는 고혈압 및 울혈성 심부전, 간경변증, 신장병 등 만성질환의 한 위험요인³⁰⁾이므로 건강과 관련하여

직장인들에게 음식을 싱겁게 먹는 방향으로 식행동 교정에 대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95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식행동, 식습관 및 기호도를 조사함으로써 기업체 단체급식 경영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침식사를 거의 안먹거나 안먹는 조사대상자는

41.7%였으며, 그 이유로는 '시간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다. 아침식사의 형태는 조사 대상자의 75.3%가 '밥'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점심식사시 사내 식당 이용율은 60.5%였으며, 남자가 76.8%로 여자 50.3%에 비해 사내 식당 이용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사내 식당에서 선호하는 반찬류는 구이 19.7%, 조림 14.5%, 무침 12.5% 순이었으며, 남녀별 선호 반찬 종류에 큰 차이는 없었다. 조사 대상자들이 특정 반찬류를 선호하는 이유는 '맛이 좋아서'가 주 원인이었다.
3. 식습관 변화 요인으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선호하는 식사형태는 세끼니 모두 한식이었으며, 그 이유로는 '입맛에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간식으로 남자들은 라면올, 여자들은 김밥을 가장 선호하였다.
4. 날씨가 흐린날에는 전류를 가장 선호하였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샐러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날씨변화에 의해 음식 선호심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맛은 담백한 맛 39.5%였으며, 다음이 짠맛 17.2%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대기업 근로자들은 자주 접하는 음식에 의해 식습관이 변화되며, 날씨에 의해서도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시간부족으로 아침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현상으로 나타나 이는 산업체 생산성과 국민영양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업체 단체급식에서 이러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알맞은 영양지식 보급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고, 아울러 기호에 맞는 식단 작성 및 단체급식 관련 업무 개발에 주력해 나아감으로서 기업체의 단체급식에 대한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참고문헌

1. 이명해, 류은순, 강현주: 부산 경남지역 산업체 급식소의 급식 평가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3): 409-420, 1996.
2. 박명희, 박명윤: 대구 경북지역 산업체 급식소의 단계별 식사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영양사회 학술대회집, pp 36, 1992.
3. 김정현, 이민준, 양일선: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 (1): 1-8, 1992.
4. 국민식생활 의식구조 조사 보고서: 식생활 개선 범운동본부. 1989.
5. 임현숙: 식습관과 건강상태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4(1): 9, 1981.
6. Bell, A. C., Stewart, A. M. and Radford, A. J.: A method for describing food beliefs which may predict personal food choice. J. Nutr. Educ., 13(1): 22, 1981.
7. 김혜경: 산업체 근로자의 식습관과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2): 118-123, 1995.
8. 박길동: 계승희, 집단급식소의 급식상태 및 급식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대한영양사회 학술대회집, 24-25, 1990.
9. 장미라, 곽동경: 사업체 급식소 근로자의 급식 서비스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2: 81, 1996.
10. 이애량: 일부 단체급식소 피급식자의 식사만족도 및 음식기호조사. 승의논총. p 181, 1984.
11. Smith, E. R.: Comparison of staff and student assessment of quality and preference for menu offerings. School Food Ser. Res. Rev., 16:29, 1992.
12. 김창숙, 안명수: 한국 근로자의 식품섭취 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1): 1-9, 1993.
13. 신영자, 박금순: 도시지역 직장남성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5): 435-439, 1995.
14. 이영순: 산업체 단체급식에 의한 영양공급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여자대학 논문집, 1987.
15. 정종학 외: 산업장 근로자의 표준체중치. 대한산업의학회지, 1(1): 52-60, 1989.
16. Dugdae, A. E., Chandler, D. and Bahgurst, K.:

1. 이명해, 류은순, 강현주: 부산 경남지역 산업체 급식소의 급식 평가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 Knowledge and belief in nutrition. *Am. J. Clin. Nutr.*, 32: 441-445, 1979.
17. 김화영, 양은주, 원혜숙: 노인복지시설의 급식관리 및 영양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3): 331-339, 1997.
 18. 채법석: 조사방법론, 학연사, 1996.
 19. 김종수, 이화진: SPSS/PC⁺ 바로쓰기, 흥진출판사, 1996.
 20. 홍성야, 김은숙: 인천지역 인문계 고교생의 식사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59-72, 1989.
 21. 윤순자: 여고생의 식습관과 학습의욕 및 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8.
 22. 이영미, 이기환, 장학길: 성인 남녀의 외식행동과 한국음식에 대한 의식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3), 1996.
 23. 이희분, 유영상: 서울지역 대학생 점심 식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3): 147, 1995.
 24. Falciglia, G. A. and Gusson, J. D.: Commercial and eating behavior of obese and normal weight woman. *J. Nutr. Edu.*, 12: 196-209, 1980.
 25. 강성기, 김태승, 백옥인: 신문소프트, 정보성, 1991.
 26. 윤희중: TV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고 연구* 봄호, 1991.
 27. 노정미, 유영상: 서울지역 대학생의 외식실태 및 기호도 조사연구(1), 제 27권 4호, 59-72, 1989.
 28. Cross, A. T. and Babicz, D.: Snacking patterns among 1800 adults and children. *J. Am. Diet. Assoc.*, 94: 1398, 1994.
 29. 이남숙, 임양순, 김복난: 초등학교 아동의 식습관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2): 187-196, 1997.
 30. 김경옥: 일부 대학생들의 짬뽕기호와 식습관에 대한 조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